

'빈손 복귀'...정부, 안전운임제 원점재검토

3년 연장안 무효화...정부, 손해배상 청구서 예고 "단순 연장이면 3년 뒤 똑같은 문제 또 반복" "고질적 문제 해소해야...운송사업구조 개선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보름이 넘는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빈손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는 '선복귀 후논의'를 애기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장기화하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제는 아예 물류운송산업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예고까지 하고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가 불가하다고 일관적으로 맞서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적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전혀 개선 내용을 안 담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엄지는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물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입제 개편도 논의 선

상에 오를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사업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할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무에 복귀했다더라도 파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복귀했다 하더라도 면책하거나 (행정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 내년 1월 1일부터 나간다...0세 70만원·1세 35만원

출생 후 2년간 지원...2024년 0세 월 100만원

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어도 일정 수준의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엔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지난 2

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은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늘린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1월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단을 꾸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유보통합'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 서비스 수

준과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 발달 교사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2년간 공간과 교사 수를 개선해 지원하는 '표준 운영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향후 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는 평가로 바뀐다. 평가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전체 A~D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앞으로는 지표별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학위가 없거나 전공 관련 없는 학위라도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학점을 따내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 즉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직 보육교사 양성 학과 운영 기관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특히 학위가 없어도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었던 3급 자격체계는 폐지하거나 역할을 재검정한다.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배급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4년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점제 기준을 딱 맞추고 있어 조금만 모자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3년제 (전문대 학과)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년제의 경우 자격증 등급을 나누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좀처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2023년부터는 원장 및 선임교사 직위를 신설한다.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직위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은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휴·폐업 또는 운영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행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폭설 대비 제설장비 점검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설전진기지서 관계자들이 제설차량 등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생후 17개월 여아 욕조에 빠져 숨져

엄마 잠시 자리 비운 듯

생후 17개월 된 여아가 집 욕조에서 목욕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17개월 된 A양이 욕조 목욕 중에 빠져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양을 목욕해주던 어머니가 욕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행적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학대나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관(간부경제) 7명 졸업식 가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9일 오전 교육원 소강당에서 교육원장과 각 과장,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경찰관(간부경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구, 임인년 마무리 '고싸움놀이'와 함께 축제 개최

광주 남구는 지난 7일 "고싸움놀이와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 발전 및 공연예술 활성화 위해 제39회 고싸움놀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필(feel)통(通) 크리스마스'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황형철)이 지난 7일 광주무역회관 다빈치홀에서 지역주민과 장애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그리는 마을이야기 '필(Feel)통(通)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다. 임형택기자



광주 남부소방, 전통시장 화재 안전 간담회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경자)는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무안소방, 휴업중인 주유소 안전관리 미흡 화재위험성 당부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휴업중인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화재 위험성이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무안=이기성기자



여수소방, '양승남 소방장 우수 구조대원 선정' 영예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제3회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자로 선정된 양승남 소방장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